

□ 해외 출장 보고

연변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조 남 호

(어문규범연구부 학예연구사)

이 글은 필자가 1994년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이익섭 선생님과 함께 延吉에서 한국어 전문가 해외 파견 활동을 하면서 見聞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1. 일정

7월 8일(금) : 오전 9시 하얼빈으로 파견되는 팀과 함께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天津으로 출발했다. 11시(이하 현지 시간) 天津 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어 연수 교재를 우편으로 다 부치지 못하고 일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짐이 많아 공항을 나오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공항 직원이 다른 짐은 검사하지 않았으나 책 짐을 보고는 포장을 뜯어 내용을 확인했다. 공항 밖에는 延吉의 정성범 선생과 하얼빈의 박연옥 선생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하얼빈 팀은 곧장 北京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延吉로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그런데 延吉 가는 비행기가 전세기인데 사람이 없어 취소되었다.

오후 4시 비행기가 떠날 가망이 없다는 판단이 서서 일단 北京으로 들어갔다. 北京에서 延吉로 가기로 하였다. 택시를 대절하여 北京으로 들어갔다. 1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7월 9일(토) : 중국에서는 겨우 토요일 근무를 하는데 이 날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라고 했다. 시내 관광을 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11시경 北京 시내를 둘러 보기 위해 나섰다. 天安門 廣場과 紫禁城을 둘러 보고, 王府井書店으로 갔다. 관광 안내서에도 소개될 정도의 서점이어서 기대를 하고 갔으나 5층짜리 서점으로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고, 관심이 같 만한 책도 별로 없었다. 조선어[한국어]를 배열한 곳에 가 보았더니 교재류가 몇 종 있을 뿐이었다. 구입할 정도의 책은 아니었다. 연구원에 비치하기 위하여 중국에 가는 길에 구입해 오라는 말을 들었던 漢語大詞典이 있었으나 한 질이 모두 있지 않을 것 같았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3시경 琉璃廠에 도착했다. 골동품을 취급하는 이 곳은 조선 시대 사신들의 기록에도 나오는 유서깊은 곳이다. 가게들을 둘러 보다 中國書店에서 漢語大詞典 전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필자가 들어갔을 때 마침 한국에서 온 사람이 이 책을 구입하면서 우편으로 부쳐 줄 것을 부탁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漢語大詞典을 구입하고 우편으로 부치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책값이 980元인데, 우편으로 부치는 비용은 그 가격의 절반 정도였다. 여러 문제가 있어 생각 끝에 사서 우리가 직접 들고 오기로 했다.

7월 10일(일) : 5시 10분 호텔을 출발하였다. 호텔에서 공항까지 1시간 정도 걸렸다. 7시 10분에 北京 공항을 출발해서 9시에 延吉 공항에 도착했다. 짐이 많았기 때문에 택시 2대를 대절하여 우리가 목을 호텔로 갔다. 한국에서 연락할 때는 백산 호텔로 예약해 달라고 했으나, 현지에서 두만강 호텔이 에어컨 시설이 있고 조용하다고 두만강 호텔로 예약해 두었다. 일본과 북한이 합자한 호텔이었다.

7월 11일(월) : 오전 10시 조선어문잡지사를 방문했다. 아파트를 개조하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듯했다. 직원은 6명이었다. 잡지 발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들었고, 잡지 교환에 대해서 얘기했다. '조선어문'을 4,000부 정도 발간해서 모든省去 배포한다고 한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구독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10,000원 정도 발간해야 하는데 구독자가 적어 그렇게까지 발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새국어생활'과 교환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엔 귀국하면 꼭 자료를 교환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오후에 호텔에서 쉬다가 新華書店에 들렀다. 연변백화상점 맞은 편에 있는데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2층으로 된 건물로 아래층에서는 교재, 사전, 아동 서적 등을 팔고 있었다. 북한에서 간행된 아동 서적이 눈에 띄었다. 남한에서 간행된 것을 복제한 책도 눈에 띄었다. 漢語大詞典도 있었다. 아래층에서 책을 구경하다 보니 5시 문닫는 시간이 되었다. 위층은 둘러보지 못했다.

7월 12일(화) : 오후 2시 延邊대학을 방문했다. 朝文學部の 교원들과 담화를 했다. 延邊대학의 朝文學部 운영, 延吉 지역의 사회언어학적 특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시계를 기증했다.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도서관을 방문했다. 4시가 넘어서 이미 도서관은 끝날 시간이 되었다. 퇴근한 직원도 있었다. 서고를 들어가 구

경했다. 한국어로 된 책을 따로 한 곳에 모아 두었다. 남한과 북한의 책이 한데 섞여 있었다. 중국어로 된 책에 비해 상당히 적은 양이었다. 시간이 없어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다.

7월 13일(수) : 오전에 中央小學校의 작문 '서클' 활동을 참관했다. 학교 수업을 보고 싶다는 이익섭 선생님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반의 구분 없이 작문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담당 선생님은 박화 선생으로 작년에 연구원의 해외동포 초청자로 한국에 왔던 분이였다. 담임은 말치 않고 서클만 지도한다고 들었다. 작문 활동은 동화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놀이를 한 후 그에 대한 소감을 쓰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우리가 참관했을 때 작문 내용은 단어 찾기 놀이를 한 것에 대한 소감과 '토끼와 자라'를 읽고 그에 대한 독후감을 쓰는 것이었다. 먼저 작문을 하고 그것을 고쳐서 다시 작성하는 중이라고 했다. 작문이 끝나고 몇 사람이 지적되어 발표를 했다. 소학교, 우리로 치면 국민학교 2학년이 글을 쓰는 것을 보았는데 맞춤법이 거의 틀리지 않았다.

오후 4시에 조선어문 사업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최만복 주임도 연구원의 해외동포 초청자로 한국에 온 적이 있었다. 정책과 과장, 규범과 과장이 합석하였다. 사업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자치주에서 정한 조선어문 사업조례에 따라 한국어의 사용에 대한 지도 업무를 하는 곳이었다.

사업위원회에서 저녁을 대접하였다. 기관을 몇 군데 공식으로 방문하니 중국의 손님 접대 풍습을 대충 알 수 있었다. 기관에 손님이 오면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식사를 대접한다. 먼저 요리와 술이 나오며, 마지막에 식사를 한다. 술은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는다. 손님이 잦은 기관에서는 술을 너무 먹어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이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기관 방문이 하루에 한 곳씩 잡혀 있어 의아해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초대받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

7월 14일(목) : 8시경 호텔을 출발하여 龍井으로 향했다. 龍井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선구자'에 나오는 지명이 있는 곳이었다. 운동주 묘를 먼저 가려고 했으나 폭우로 길이 험해 중간에 포기했다. 운동주 생가로 향했다. 한창 복원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생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가와 비슷한 집을 사서 옮겨 놓고 복원하는 중이라고 했다. 생가를 둘러보고 바로 옆에 있는 농가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智新鄉 鄉長을 따라 智新鄉 인민위원회로 향했다. 이익섭 선생님께서 주민들이 관공서에 일을 보러 올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후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사일을 나가서 인민위원회에 사무 보러 나오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고, 향장과 대화하다 돌아왔다.

龍井에서 보는 시골 풍경은 우리의 예전 시골 풍경과 흡사했다. 주변의 지형까지도 낮아 있었다. 龍井에서 돌아오는 길 중간에 유달리 흡사한 마을을 만나 일부러 차를 세우고 둘러보기도 했다.

7월 15일(금) : 애초에 잡혔던 일정으로는 16일부터 한국어 연수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소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룬다고 하여 18일로 연기되었다. 백두산을 다녀 오기로 하였다.

오전 8시 호텔에서 빌린 차를 타고 출발했다. 龍井을 거쳐 가는 길이 보통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갈 때는 비 온 직후여서 길이 무척 험했고, 중간중간 쉬면서 갔기 때문에 6시간 정도 걸렸다. 길은 비포장 도로였다. 天池 입구에 가서 야 시멘트 포장 길이 나왔다. 이 길은 天池 바로 밑 기상대까지 이어진다. 버스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관광객은 天池 입구에서 다시 돈을 내고 그곳에서 대기하는 차를 타야 했다. 우리 차는 그냥 갈 수 있는 차이어서 그대로 올라갔다. 天池를 보고 나서 속소를 찾았다. 백두산 등산로 입구의 호텔로 잡았다. 말이 호텔이지 여관방 정도의 수준이었다.

7월 16일(토) : 아침 식사를 하고 10시에 출발했다. 돌아오는 길은 돌더라도 좋은 길을 오기 위해 安圖縣쪽을 택했다. 중간에 安圖縣 万寶라는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조선족 식당에서 김치, 장국에 밥으로 먹었다. 김치라고 하지만 양배추에 고추를 뿌린 것이어서 우리의 김치와는 달랐다.

7월 17일(일) : 호텔에서 쉬었다.

7월 18일(월) : 한국어 연수를 시작하였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연수 장소인 제2고급중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공개 재판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죄상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자리인 것 같았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갈아 죄상을 소개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갈아 말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였다.

다소 지체가 되어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다. 연수생을 모집하는 일은 현지에서 했다. 소학교, 중학교 선생님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延吉 시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므로 모집했다고 했다. 교원 연수학교의 황정자 선생만 예외였다. 먼저 이익섭 선생님이 개강 인사를 하시고, 필자가 연수 일정 및 국어연구원 소개를 하였다. 강의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씩 하기로 하였다.

오전에는 이익섭 선생님이 강의를 하였고, 오후에는 필자가 강의를 했다. 한글 맞춤법을 소개했는데 주로 북한과 규범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소개했다. 첫부분인 자모의 순서, 배열에서부터 처음 아는 사실인 듯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그동안 남한 책을 접해 본 덕

분인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 맞아' 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체계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 듯했다. 용어조차 낱설어 했다. 학교 선생님들이어서 중간중간 남한 학교의 한국어 교수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다. 떠나기 전에 중국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교수법에 관한 책이나 테이프를 구해서 가져 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기도 했었다.

7월 19일(화) : 전날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하였다.

7월 20일(수) : 오전에 이익섭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다. 20일에는 오전 오후를 모두 필자가 할 계획이었으나, 이익섭 선생님께서 표준어 규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조정한 것이다.

이날 필자는 언어 예절에 대해 얘기했다. 延邊의 언어 예절이 어떤지를 알고 강의를 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동안 머물면서 들어 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때그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연수생들이 방학이 시작되고 밀린 일을 해야 하는데 연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일정을 줄여 주었으면 하기에 일정을 하루 단축하였다. 이날 강의를 끝내고 곧바로 간담회를 가졌다.

7월 21일(목) : 오전에 朴恩 선생을 방문했다. 박은 선생은 연수에 참가했던 중앙소학교의 朴文子 선생의 아버지이다.

延吉에 머물면서 필자는 북한에서 간행된 책을 구하려고 했다. 서점에서 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으나 서점에 별로 책이 없었다. 新華書店에 다시 가 봤으나 같은 책이 수십 권씩 있을 뿐 종류는 많지 않았다. 주위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봐도 별로 책이 없다고 했다.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재미가 없어 다 버렸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래서 연수를 시작하면서 연수생들에게 연구원에서 북한말을 연구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말하고 북한 책을 가지고 있으면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특히 북한 교과서와 소설책을 구한다고 했다. 다음날 박문자 선생만 책 2권을 들고 왔다. 아버지 집에 책이 많이 있는데 어느 책을 원하는지 몰라 일단 2권만 빼왔다고 했다. 집에 가서 책을 직접 골라도 좋다고 했다. 그래서 책을 보러 간 것이다.

박은 선생 집은 시내 중심가에서 좀 벗어난 곳의 아파트 6층이었다. 책을 많이 모아두었으나 문화대혁명 때에는 북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문제가 되어 없애 버리기도 했다고 했다.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고 박은 선생이 뽑아 주는 책을 가져왔다. 책을 제공해 준 보답으로 한국에 돌아온 후 책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다.

7월 22일(금) : 하얼빈 팀이 北京으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도 北京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시간상으로 보아 24일 延吉에서 출발하면 비행기가 1시간만 연착해

도 서울행 비행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北京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했다. 그래서 정성범 선생에게 부탁했더니 정기선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관광철이어서 北京 가는 비행기 표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냥 24일에 출발하기로 했다.

출발 전 남은 시간에 圖們을 다녀오기로 했다. 圖們은 두만강 너머로 북한땅이 보이는 곳이다. 延吉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다.

7월 23일(토) : 호텔에서 쉬었다.

7월 24일(일) : 오전 8시에 호텔을 출발했다. 비행기는 제 시간에 延吉을 출발했다. 이 익섭 선생님과 들만 떠났다. 11시 반 天津에 도착해서 하얼빈 팀과 만났다. 1시에 天津을 출발해서 오후 5시(한국 시간) 김포 공항에 도착했다.

2. 한국어 사용 실태

2.1. 한국어의 사용 현황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延吉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대부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필자가 중국어를 전혀 모르면서도 생활하는 데 거의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한국의 어느 한 지방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였다.

조선족이 몇 세대를 중국에 살면서도 한국어를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민족의 자치를 허용한 중국의 민족 정책에서 일차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상 생활, 교육 등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기반이 마련됐다 해도 언어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점에서 조선족이라면 당연히 한국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중국 조선족의 태도가 한국어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한국어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자부심은 延吉시에 머무르는 동안 여러 계층의 사람에게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족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주 정부에서는 한국어를 중국어와 병용하는 어문조례를 제정하여 한국어의 보존에 노력하고 있었다. 간판의 경우도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상한 간판이 내걸리기도 한다. 延吉 시내에서 '○○썸라'라는 간판이 눈에 띈 적이 있었다. 併記된 한자에 '○○中心'이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썸타(센터)'를 가리키는 말인 듯했다. 조선어문 사업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간판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어 '썸라'에 대해 물

있더니 한국어를 모르는 중국인이 쓰여진 대로 그대로 세기다가 글자를 잘못 세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延邊 자치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이라고 모두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 한국어보다 중국어에 능숙한 경우가 오히려 흔하지 않은가 싶다. 安圖縣 万寶의 식당에 3대가 살고 있었는데 1대인 할머니는 한국어에 능숙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2대 아주머니는 다소 불편해 했다. 학교를 다니는 3대 어린이는 전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한다. 한국어를 가르치기는 해야 하나 어울려 노는 아이들이 대부분 중국인이고, 학교도 중국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조선족은 한국어를 해야 한다는 자부심이 강하기는 하지만 일부러 중국인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아무래도 중국 땅이기 때문에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일부러 중국인 학교로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延吉 시내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다. 물건 설명을 할 때 필자가 알아듣는 데 조금도 불편이 없어 조선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품 안내 책자를 보여주면서는 안내문을 읽지를 못했다. 조선족이 아니냐고 했더니 조선족 맞다고 했다. 그렇지만 중국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말은 해도 글은 읽지 못한다고 했다. 남편도 중국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는 한국어를 읽을 줄 모른다고 했다. 다만 자식은 조선족 학교로 보낸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었으나 아무래도 한국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보낸다는 답변만 듣고 말았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조선족은 당연히 조선어를 해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

延吉 시내에는 중국인도 섞여 살고 있다. 중국인과 조선족의 접촉이 일상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중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龍井市 智新鄉 인민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곳의 파출소 소장은 중국인이면서도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백두산의 경우는 전체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상품 구매력도 높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 정도라면 한국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물건 판매에 훨씬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입구에서 장사하는 중국인들은 '산삼, 백 원, 천 원' 등 상품명, 물건값을 겨우 말하는 정도밖에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다. 조선족이 흥정을 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었다. 백두산 등산로 입구의 식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인이 경영하고 있었는데 조선족 아주머니가 식당일을 거들고 있었다. 본인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식당 주인이 한국 사람을 상대하려면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관광철에만 와서 있는다고 했다.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로 현지 사람들은 大民族主義를 들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소수민족의 언어를 배우겠느냐는 것이 중국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이에 덧붙여 조선족이 중국어를 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듯하다. 조선족이 처음 만나는 상대가 중국인인지 조선족인지 모를 때 한국어로 말을 붙이는 경우는 전혀 보지 못했다. 중국어를 서툴게 구사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延吉 시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중국어는 구사한다. 말을 붙인 후 상대편이 조선족인 줄 알게 되면 한국어로 대화하기도 하지만, 중국인인 경우는 중국어로 대화한다. 이는 延吉이 중국 땅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야 어떻든 대화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다만 중국어를 잘 못하는 조선족을 만났을 때의 다소의 불편만 감수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새로이 언어를 배울 필요를 중국인들이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88올림픽 개최 이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한국과의 경제 교류가 늘어나면서 중국인이면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국력과 언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2.2. 남한 말의 영향

조선족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남한에서 말해지는 한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40년 이상 남한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달라진 점도 없지 않다. 조선족의 한국어는 북한 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북한 말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이 조선족의 한국어에서도 발견된다. 이에 더해 중국이라는 다른 환경에서 발달된 차이도 없지 않다. 여기에는 조선족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나타난 차이도 있으며, 중국어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긴 차이도 있었다.

낯설었던 말을 몇 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남편을 지칭하는 말 : 나그네

형부를 지칭하는 말 : 아저씨

요리를 두루 가리키는 말 : 채(菜?)

병따개를 가리키는 말 : 초지(?). 중국어라고 함.

괜찮다는 말 : 일없다

이백원 : 양백원(兩百元)

502호 : 오백공이호

소형차 : 하이야

조선족들이 남한의 말에 대해 흔히 지적하는 점이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읽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필자가 延吉에 머물면서 그쪽 신문을 읽을 때도 비슷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국 한자음으로 읽힌 중국어가 구절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더구나 한글로 되어 있어 더 어려웠다.

말의 차이는 때로 심각한 의사 소통 장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필자 역시 여러 차례 경험했다.

한번은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손님이 찾아 올 것 같아 호텔 프런트에 부탁을 해 두었다. “호텔 뒤에 있는 건물 건너편 골목의 ○○식당으로 가니 손님이 오면 알려 주십시오.” 나중에 그 손님은 우리를 찾아 오지 못했다. 프런트의 안내원이 말을 알아들은 듯해서 안심했더니 이 안내원이 ‘건물’이라는 말을 알아 듣지 못해서 막연히 호텔 뒤라고만 한 것이었다. ‘층집’이라고 해야 알아 듣는다고 한다. 또 한번은 욕실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전화로 뜨거운 물을 넣어 달라고 부탁했더니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기도 했다. 혹시 말을 못 알아들을까 염려되어 때로 같은 말을 두세 번씩 반복하기도 하고, 알 만한 말을 골라서 하기도 했다. 이 점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조선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지냈지만 왕래가 시작되면서 수십 년 간의 공백으로 발생한 말의 차이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어떻게든 그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은 남한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 년여 전에 중국에서 와서 중국 내 한국어의 문제에 대해 강연했던 분이 요새 중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남한식으로 말을 하려고 해서 규범에 큰 혼란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현재 중국의 조선족은 남한으로부터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강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언어 또한 영향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延吉에 머물면서 이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 말의 영향이 심한 대표적인 것으로 노래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延吉 시내에서 남한 노래를 듣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음악 테이프뿐만 아니라 노래방 기계도 남한의 것이 그대로 수입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선곡할 수 있는 노래도 순 남한 노래이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어 보면 최근 노래는 거의 남한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게 부른다. 남한에서 들어간 테이프를 통해 노래를 익혔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으로부터 유입되는 도서 역시 무시 못할 요인이다. 남한에서 사적·공적으로 책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돌려가면서 읽느라고 책이 너털너털해질 정도라고 한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이다. 이 책들에서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필자가 들은 이야기가 있다. 소학교 다니는 아동이 동화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그 책이 남한에서 간행된 책이었다고 한다. 독후감을 읽어 보니 '룡왕(龍王)'이라고 써야 할 자리에 '용왕'이라고 썼다고 한다.

방송의 경우도 남한 말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나 싶다. 延邊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언어 규범의 적용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방송을 듣는 사람으로부터 항의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아나운서 중에서 거의 남한식으로 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금 延邊은 수십 년 간 따라온 언어 규범 위에 남한의 언어 규범이 새로 덧씌워지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그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는 필자로서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새로운 규범을 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음이 분명하다.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듣지 못했다. 남한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으므로 남한 말의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고, 혼란도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혼란을 막으려는 정책이 추진되거나 되고 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다. 연수생들이 연수가 끝난 후 남북한의 통일된 언어 규범을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이 말이 연변이 처한 위치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